



## 미 증시, 은행주 부진 및 차익실현 매물 소화하며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22 일(화) 미국 증시는 테슬라, 엔비디아의 개장전 강세, 10 년물 국채 금리가 4.31%대까지 하향 안정된 데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메이시스(-14.05%), 딕스스포팅굿즈(-24.15%) 등 소매업체들 실적 발표에서 소비둔화 우려 부각, S&P 의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상승폭 반납하며 혼조세 마감. (다우 -0.51%, S&P500 -0.28%, 나스닥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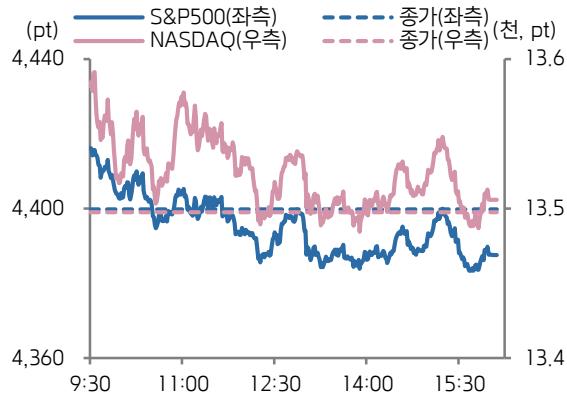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에게 한가지 큰 무기는 바로 신뢰다. 2%라는 목표치를 설정하면 반드시 달성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마법은 없다”고 발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S&P 도 5 개 지역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금리인상과 예금 유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 코메리카(CMA), 어소시에이트 뱅코프(ASB), 키코프(KEY), 벨리내셔널뱅코프(VLY), UMB 파이낸셜(UMB)에 대해 금리 상승과 대규모 예금 유출, 미실현손익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 “많은 예금자들이 자금을 고금리 계정으로 옮기면서 중소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다”며 이로인한 예금의 감소가 은행의 유동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

미국 7 월 기준 주택 판매는 MOM -2.2%(예상 -0.2%, 전월 -3.3%) 기록하며 부진. 서부에서 2.7%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전역에서 감소. 집계측은 주택 판매 부진이 고금리와 공급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미 주택 판매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번 기준주택 판매 수치는 거래완료 기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약 6.5%에서 7%를 넘는 수준으로 올랐던 5 월과 6 월에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 이에 따라 7 월에 판매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0만 6,700달러(5 억 4,500만원) 으로 YOY 1.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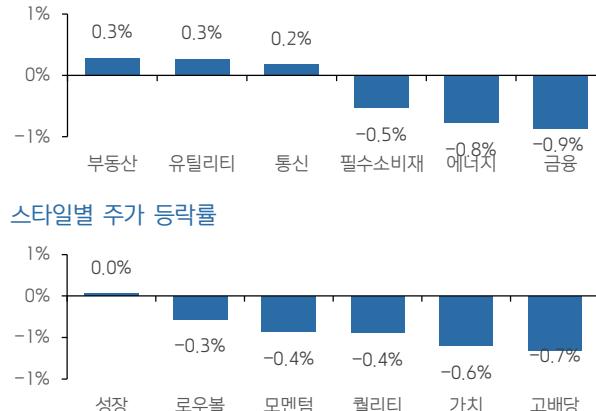
부동산(+0.3%), 유틸리티(+0.3%), 통신(+0.2%) 업종 강세, 금융(-0.9%), 에너지(-0.8%), 필수소비재(-0.5%) 업종은 약세. 메이시스(-14.05%)은 EPS 26 센트, 매출 51 억 3,000 만달러(6 조 8,600 억원)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매장 매출 YOY -8%, 디지털 매출 -10% 감소하고 소비 감소를 전망하며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유지한 영향으로 급락. 딕스스포팅굿즈(-24.15%) 역시 부진한 실적과 재고 감소폭 축소로 급락.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15.74	+0.28%	USD/KRW	1,335.50	-0.54%
코스피 200	329.70	+0.26%	달러 지수	103.61	+0.3%
코스닥	893.33	+0.52%	EUR/USD	1.08	+0%
코스닥 150	1,453.66	+1.02%	USD/CNH	7.31	+0%
S&P500	4,387.55	-0.28%	USD/JPY	145.86	-0.02%
NASDAQ	13,505.87	+0.06%	채권시장		
다우	34,288.83	-0.51%	국고채 3년	3.798	+0.8bp
VIX	16.97	-0.93%	국고채 10년	3.984	+1.7bp
러셀 2000	1,850.84	-0.28%	미국 국채 2년	5.046	+4.5bp
필라. 반도체	3,527.69	-0.93%	미국 국채 10년	4.324	-1.4bp
다우 운송	15,591.94	-0.72%	미국 국채 30년	4.400	-4.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60.37	+0.84%	WTI	79.64	-0.6%
MSCI 전세계 지수	669.34	+0.03%	브렌트유	83.87	-0.7%
MSCI DM 지수	2,909.19	-0.05%	금	1926	+0.16%
MSCI EM 지수	966.69	+0.72%	은	23.45	+0.47%
MSCI 한국 ETF	60.78	-0.49%	구리	375.7	+1.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8.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흐름

### 주요 체크 사항

2. 테슬라 주가 강세가 국내 이차전지주 랠리를 주도할 가능성
3. 위안화, 원/달러 환율 흐름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36%까지 급등하며 전고점을 돌파.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4.32%대까지 하향 안정화.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최근 미증시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있으며 일각에서는 잭슨홀 미팅 전후로 5%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전일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 수정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극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 이후 2년물 단기 금리 역시 5%대를 상회한 점 역시 부담.

추가로 증시 차익실현을 주도한 요인은 S&P 의 5 개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과 소매업체들의 주가 급락. 무디스가 선제적으로 신용등급 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증시 충격은 제한적이었으나,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빨리 내셔널뱅코프, 코메리카, 키코프의 주가가 모두 4% 이상 하락하며 금융섹터 하락을 주도. 또한 미국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메이시스(-14.05%)의 주가가 실적발표 이후 급락한 것은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

결론적으로 금리 상승 부담, 지방은행들의 건전성 문제 및 타이트해지는 대출, 신용 여건, 소비 경기 둔화 등 기존 매크로 악재들이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하며 반등을 누르고 있는 상황. 잭슨홀 미팅 파월의장 발언을 증시에서 소화한 이후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재차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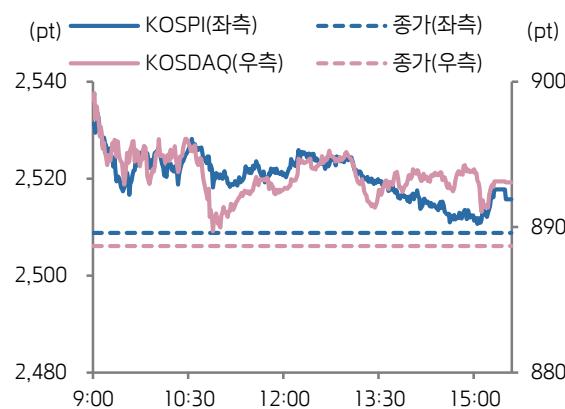
22 일(화) 국내 증시는 관망세 짙어지며 거래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테슬라 급등에 힘입은 이차전지주 강세, 원/달러 환율 강세, 중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 상승. (KOSPI +0.28%, KOSDAQ +0.52%)

장초반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 순매도 확대에 하락 전환. 하락종목수가 상승종목수 보다 많았던 것은 결국 지수 방향성 베팅이 아닌 테마에 쏠림 현상 나타났다는 의미. 엔비디아 실적의 경우 EPS 2.07 달러로 전분기 0.87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으로, 이에 부합할 경우 이차전지에서 반도체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

한편 증시 상단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은 7 월 이후 중국 위안화와 연동되어 나타난 급격한 원화 약세. 중국 정부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촉발된 위안화 약세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부동산 부양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5 년 만기 LPR 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친 위안화 약세를 방어 위함이며, 전일 달러/위안 고시 환율을 예상보다 낮게 유지하며 위안화 가치 절상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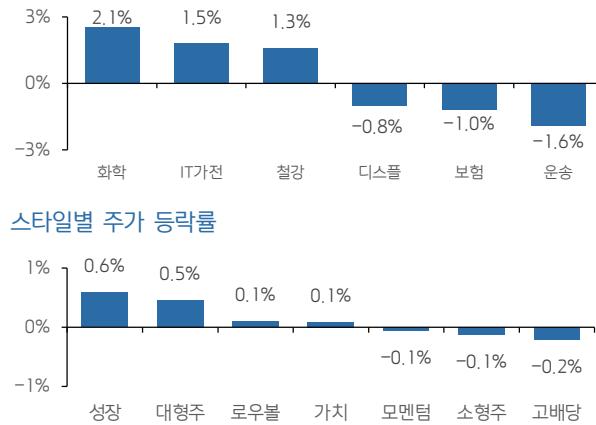
이와 함께 부동산 수입에 의존하던 지방정부 채무 위기 완화 및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1 조 5000 억위안 규모의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을허용 발표하는 등 정책패키지 역시 발표하고 있는 상황. 중국 부동산 위기는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중국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야 국내 증시에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에 국내 중국 소비관련주들은 인바운드 수혜가 가장 큰 면세, 백화점 중심으로 차별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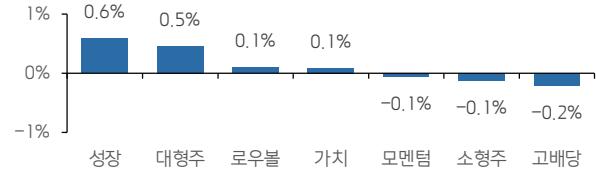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